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내 용

1. 개요
2. 평가방법
3. 2016년도 주요 평가 결과
4. 부문별 평가 결과
5. 요약 및 정리

작 성

안지혜 연구원 | jihye@kistep.re.kr | 02-589-5240

1. 개요

-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

– IMD, WEF 등의 과학기술 부문평가는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하부구조의 일부로 평가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혁신역량이란 어느 한 국가 또는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능력(Porter & Scott Stern, 200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0개 OECD 회원국을 평가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

- 2010년 OECD 회원국으로 신규 추가된 4개 국가(이스라엘,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는 향후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포함 예정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이번 호에서는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의 주요결과를 정리·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요 평가결과와 부문별 분석내용을 정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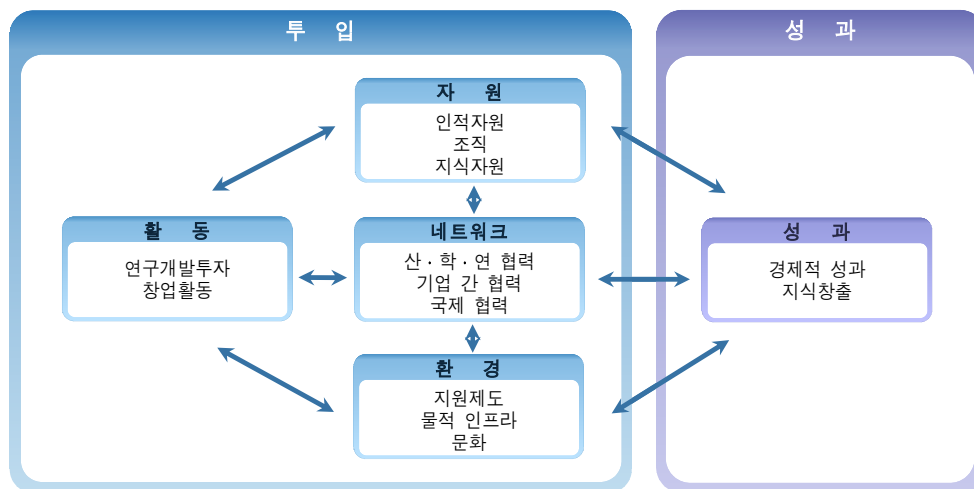
2. 평가방법

- 국가혁신체계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이란 특정 국가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 및 관계의 집합을 말함(Lundvall, 1992)
-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모형은 자원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
 - 평가 모형은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정량지표 27개, 정성지표 4개) 지표로 구성

[표 1] 평가지표 구성

자 원	활 동	네트워크	한 경	성 과
◦ 인적자원(3) ◦ 조직(2) ◦ 지식자원(2)	◦ R&D투자(5) ◦ 창업활동(2)	◦ 산·학·연 협력(2) ◦ 기업 간 협력(1) ◦ 국제 협력(2)	◦ 지원제도(2) ◦ 물적 인프라(2) ◦ 문화(2)	◦ 경제적 성과(3) ◦ 지식창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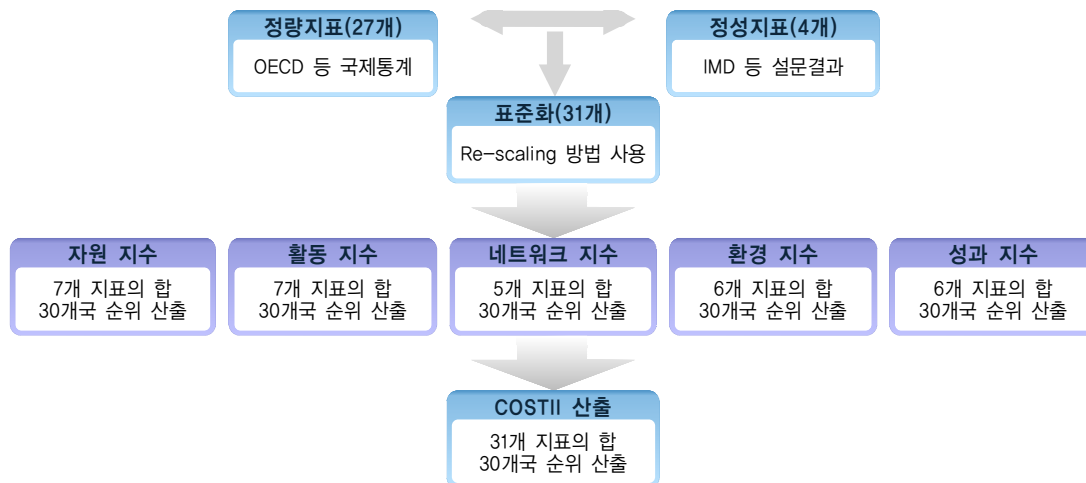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지표수를 나타냄



[그림 1] 평가지표의 기본틀

- 국가별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결과 도출
 - 31개 지표를 대상으로 원자료를 수집한 후, 결측치 보정과 표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데이터 확정
 - ※ 신뢰도 높은 최신 국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지수를 도출한 후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부문 지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도출



[그림 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산출방법

3. 2016년도 주요 평가결과

● 2016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총 30개국)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COSTII는 12.322점으로 OECD 평균(9.589점)을 상회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¹⁾: 12위('07년~'09년) → 11위('10년) → 10위('11년) → 9위('12년) → 8위('13년) → 7위('14년) → 5위('15년~'16년)

● 활동 부문은 2위로 강점인 반면, 환경 부문은 23위로 취약²⁾

- 강점인 활동 부문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약점인 환경 부문의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여 강점부문과 약점부문 간 격차가 심화
- 5개 부문의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네트워크, 환경)하거나 동일(활동, 성과)하였음에도 여전히 OECD 30개국 중 상위권 유지

※ 활동: 2위→2위

※ 자원: 8위→5위, 네트워크: 10위→11위, 환경: 22위→23위, 성과: 9위→9위

1)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및 종합순위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 각 년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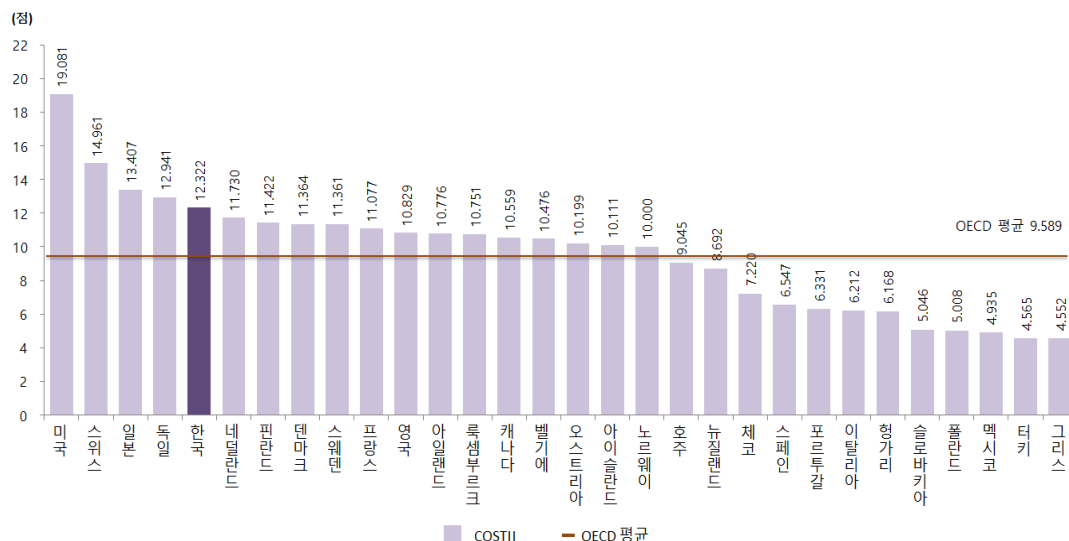
2) 지표 변경, 최신 데이터의 업데이트, 세부 산정 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과거 순위와 지수를 변경된 기준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한 순위, 점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우리나라의 부문별 평가결과(2012년~2016년)

부문	배점	한국										상대수준(%)		OECD 평균 지수	최고국 (지수)
		2012		2013		2014		2015		2016		우리 나라	OECD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원	7	1.420	10	1.637	8	1.803	7	1.882	8	1.956	5	33.2	25.2	1.487	미국 (5.888)
활동	7	3.810	3	4.083	2	4.182	2	4.002	2	4.141	2	80.7	41.3	2.116	미국 (5.130)
네트 워크	5	1.454	18	1.509	15	1.696	13	1.482	10	1.543	11	56.6	50.1	1.366	스위스 (2.727)
환경	6	3.237	19	3.165	20	2.864	23	2.966	22	2.731	23	70.6	78.7	3.047	핀란드 (3.869)
성과	6	1.857	7	1.858	8	1.827	10	1.870	9	1.950	9	59.8	48.3	1.574	스위스 (3.262)

주) 배점은 각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점수는 COSTII의 평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화지수,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 미국은 올해(19.081점)를 포함하여 평가가 시작된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일본은 7년 연속 각각 2위와 3위 유지
- 스위스(2위), 네덜란드(6위), 핀란드(7위), 덴마크(8위), 스웨덴(9위) 등 강소국형 국가들이 다수 상위권에 포진
- 최하위 그룹인 그리스(4.552점, 30위), 터키(4.565점, 29위), 멕시코(4.935점, 28위), 폴란드(5.008점, 27위), 슬로바키아(5.046점, 26위)의 COSTII는 1위국 미국의 30% 이하 수준



〔그림 1〕 2016년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4. 부문별 평가결과

㉠ 자원

- 자원 부문의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5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 인적자원 항목은 지수, 상대수준 모두 증가하여, 자원 부문 순위에 영향을 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항목 지수 및 상대수준

지수: '12년 1.128점 → '13년 1.322점(↑0.194) → '14년 1.473점(↑0.151) → '15년 1.535점(↑0.062) → '16년 1.589점(↑0.054)

상대수준: '12년 62.8% → '13년 71.2%(↑8.353) → '14년 77.0%(↑5.785) → '15년 77.8%(↑0.845) → '16년 81.7%(↑3.875)

- 인적자원 항목의 지표인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의 경우 90% 이상의 상대수준(94.9%)으로 진입하며 인구 대비 연구개발인력 확보의 수준을 높임

● 조직과 지식자원 항목도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10위권에 속하며, 지수와 상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약진

- 단, 조직과 지식자원 항목 상대수준은 8~10%로 1위국 및 OECD 평균과 격차가 상존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직과 지식자원 항목 지수/상대수준

조직: '12년 0.138점/6.9% → '13년 0.148점/7.4%(↑0.010점/↑0.505%p) → '14년 0.151점/7.6%(↑0.003점/↑0.150%p) → '15년 0.155점/7.8%(↑0.004점/↑0.207%p) → '16년 0.161점/8.0%(↑0.006점/↑0.280%p)

지식자원: '12년 0.154점/7.7% → '13년 0.167점/8.4%(↑0.012점/↑0.688%p) → '14년 0.179점/9.1%(↑0.013점/↑0.707%p) → '15년 0.192점/9.9%(↑0.013점/↑0.712%p) → '16년 0.206점/10.6%(↑0.014점/↑0.743%p)

[표 3] 우리나라의 자원 부문 평가결과

항목	지표	한국순위					최고국	상대수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OECD 평균
인적 자원	총 연구원 수	4	4	4	4	4	미국	26.3	11.3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5	4	4	4	4	덴마크	94.9	55.5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	21	19	19	21	21	스위스	37.7	46.0
인적자원		10	7	5	8	8	미국	81.7	58.0
조직	미국특허 등록 기관 수	7	7	7	7	7	미국	5.9	5.9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	10	8	9	8	8	미국	10.1	11.0
	조 직	8	8	8	8	7	미국	8.0	8.5
지식 자원	최근 15년간 SCI논문 수(STOCK)	11	10	10	10	10	미국	10.0	10.6
	최근 15년간 특허 수(STOCK)	6	5	5	5	4	미국	11.2	8.2
지식자원		8	8	7	6	6	미국	10.6	9.7

주)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활동

- 활동 부문의 순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위

- 활동 부문 1위국인 미국과의 상대수준은 80.7%로, 5개 부문 중 가장 격차가 작으며 OECD 평균 상대수준(41.3%)을 약 2배 가량 상회

- 연구개발투자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2위이며 상대수준은 98.0로 OECD 평균 상대수준(46.0%)보다 월등히 높은 강점영역

- 창업활동 항목은 전년도 13위에서 6단계 상승한 7위, 상대수준은 27.6%로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

- 창업활동지수(TEA)의 순위는 전년대비 7단계 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18위→11위), 창업활동지수의 큰 순위 상승은 비교대상국의 상대적 순위 하락도 영향을 줌

※ 한국('15년 18위, '16년 1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하락한 국가('15년~'16년): 영국 7위→19위, 네덜란드 10위→17위, 헝가리 11위→14위, 폴란드 12위→12위, 오스트리아 13위→13위, 그리스 14위→20위, 체코 15위→15위, 스위스 17위→16위

[표 4] 우리나라의 활동 부문 평가결과

항목	지표	한국순위					최고국	상대수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OECD 평균
연구 개발 투자	연구개발투자 총액	4	4	4	4	4	미국	15.8	8.4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2	1	1	1	1	한국	100.0	39.0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	15	15	14	11	11	스위스	43.1	39.4
	산업부가가치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	3	2	1	1	1	한국	100.0	38.0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2	1	1	1	1	한국	100.0	43.9
소 계		3	2	2	2	2	미국	98.0	46.0
창업 활동	창업활동지수(TEA)	10	15	19	18	11	멕시코	31.6	27.0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비중	15	6	6	4	3	미국	23.7	12.0
	소 계	17	13	13	13	7	멕시코	27.6	21.5

주)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네트워크

- 네트워크 부문의 순위는 작년까지는 상승추세에 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1위 하락한 11위

※ 네트워크 부문 순위 : 18위('12년) → 15위('13년) → 13위('14년) → 10위('15년) → 11위('16년)

- 우리나라는 산·학·연 협력(상대수준 91.8%) 항목이 OECD 평균(상대수준 44.6%)을 크게 상회하는 강점 영역
- 우리나라의 기업 간 협력 및 국제 협력 항목의 상대수준은 각각 30.1%, 10.3%이며, 순위는 각각 22위, 16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기업 간 협력 항목의 경우 설문지표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임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5〕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부문 평가결과

항목	지표	한국순위					최고국	상대수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OECD 평균
산·학·연 협력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2	2	2	2	2	일본	57.9	12.3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12	15	11	8	10	터키	45.7	38.1
	소 계	7	5	4	4	4	독일	91.8	44.6
기업 간 협력	기업 간 기술협력(※)	22	23	22	22	22	핀란드	30.1	55.6
	소 계	22	23	22	22	22	핀란드	30.1	55.6
국제 협력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	15	16	17	14	13	룩셈부르크	10.1	14.7
	GDP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중	17	21	15	17	17	룩셈부르크	10.5	15.8
	소 계	16	17	19	16	16	룩셈부르크	10.3	15.3

주)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환경

- 환경 부문은 5개 부문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이며, 올해는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한 23위

※ 환경 부문의 OECD 평균 상대수준은 78.7%로 5개 부문 중 활동에 이어 1위국과의 격차가 작은 편임을 감안하여 해석에 유의

* 부문별 우리나라 상대수준(OECD 평균 상대수준)(%) : 자원 33.2(25.2), 활동 80.7(41.3), 네트 워크 56.6(50.1), 환경 70.6(78.7), 성과 59.8(48.3)

- 우리나라의 물적 인프라 항목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5위를 차지하였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수한 ICT 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

※ 물적 인프라 항목 지수와 순위 : 1.716점('12년, 1위) → 1.654점('13년, 1위) → 1.567점('14년, 4위) → 1.541점('15년, 4위) → 1.426점('16년, 5위)

- 이에 반해 지원제도와 문화 항목은 하위권으로, 환경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수준 간의 편차가 심함

※ 지원제도 항목 지수와 순위 : 0.722점('12년, 25위) → 0.659점('13년, 24위) → 0.583점('14년, 28위) → 0.642점('15년, 27위) → 0.584점('16년, 26위)

※ 문화 항목 지수와 순위 : 0.798점('12년, 22위) → 0.852점('13년, 20위) → 0.714점('14년, 23위) → 0.783점('15년, 21위) → 0.721점('16년, 21위)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지원제도 항목 순위는 24위~28위권으로 하향고착 상태,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6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 및 사회 인식과 관련 지표는 하위권 고착

[표 6] 우리나라의 환경 부문 평가결과

항목	지표	한국순위					최고국	상대수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OECD 평균
지원 제도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14	16	18	19	20	헝가리	25.9	34.9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24	25	26	26	26	스위스	32.5	59.8
	소 계	25	24	28	27	26	헝가리	42.4	68.7
물적 인프라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	1	2	3	4	덴마크	91.8	51.4
	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	3	5	7	6	10	영국	77.4	58.8
	소 계	1	1	4	4	5	일본	93.0	71.9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6	25	26	26	26	아일랜드	29.9	52.1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8	17	18	16	19	스위스	42.2	47.7
	소 계	22	20	23	21	21	캐나다	42.8	59.2

주) (※) 표시는 설문문항으로, 2012~2014의 3년 평균치 사용,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성과

- 성과 부문 지수는 전년대비 상승(1.950점, ↑ 0.079점),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9위

● 투입(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 대비 연구개발 성과는 특허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29위),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26위)는 하위권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18위)는 중위권으로 생산성 측면의 성과 지표가 약세

[표 7] 우리나라의 성과 부문 평가결과

항목	지표	한국순위					최고국	상대수준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국	OECD 평균
경제적 성과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19	18	20	18	18	룩셈부르크	19.3	25.5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1	1	1	1	1	한국	100.0	49.7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7	26	26	26	26	아일랜드	0.5	9.0
	소계	6	7	7	7	7	아일랜드	53.9	38.5
지식 창출	연간 특허 수	4	4	4	4	4	미국	17.0	8.3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	5	4	4	4	4	일본	57.4	31.9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29	29	29	29	29	스위스	1.9	31.6
	소계	11	12	15	15	15	미국	41.9	40.0

주)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5. 요약 및 정리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12.322점으로 OECD 30개국 중 5위

-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며, 이는 조직, 창업활동 등 항목의 순위상승과 우리나라 강점영역인 연구개발투자, 산학연협력 항목 등의 상위권 유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활동부문(2위)은 전통적인 강점부문이나 환경부문(23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순위의 분야별 편중이 존재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지원제도 항목은 가장 취약한 항목이며 특히 SCI 논문수 및 인용도(29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6위)의 순위는 하위권에 고착되어 있어, 연구개발 관련 제도 기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안목 필요

[참고자료]

[표 8]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추이(2012년~2016년)

국 가	COSTII(점)					상대수준(%)					순위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미국	20.120	19.386	20.234	19.596	19.081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1
스위스	14.804	14.476	14.850	14.557	14.961	73.6	74.7	73.4	74.3	78.4	2	2	2	2	2
일본	14.202	13.661	14.143	13.708	13.407	70.6	70.5	69.9	70.0	70.3	3	3	3	3	3
독일	13.907	12.879	13.642	13.224	12.941	69.1	66.4	67.4	67.5	67.8	4	6	4	4	4
한국	11.753	11.866	12.539	12.531	12.322	58.4	61.2	62.0	63.9	64.6	9	8	7	5	5
네덜란드	12.731	13.009	12.795	12.141	11.730	63.3	67.1	63.2	62.0	61.5	7	5	6	7	6
핀란드	13.044	12.393	12.502	12.099	11.422	64.8	63.9	61.8	61.7	59.9	6	7	8	8	7
덴마크	11.368	11.576	11.928	11.535	11.364	56.5	59.7	59.0	58.9	59.6	11	10	10	9	8
스웨덴	13.209	13.236	13.188	12.372	11.361	65.7	68.3	65.2	63.1	59.5	5	4	5	6	9
프랑스	11.553	11.244	11.512	11.228	11.077	57.4	58.0	56.9	57.3	58.1	10	13	11	11	10
영국	11.260	11.307	11.441	11.095	10.829	56.0	58.3	56.5	56.6	56.8	12	12	12	12	11
아일랜드	10.471	11.533	12.504	11.381	10.776	52.0	59.5	61.8	58.1	56.5	17	11	9	10	12
룩셈부르크	10.478	10.232	10.826	11.042	10.751	52.1	52.8	53.5	56.3	56.3	16	18	16	13	13
캐나다	10.731	10.314	11.288	10.950	10.559	53.3	53.2	55.8	55.9	55.3	13	17	13	14	14
벨기에	10.708	11.116	10.112	9.800	10.476	53.2	57.3	50.0	50.0	54.9	14	14	18	18	15
오스트리아	10.551	10.734	11.137	10.591	10.199	52.4	55.4	55.0	54.0	53.5	15	15	15	15	16
아이슬란드	12.044	11.686	11.122	10.571	10.111	59.9	60.3	55.0	53.9	53.0	8	9	14	16	17
노르웨이	9.828	10.421	10.615	10.147	10.000	48.8	53.8	52.5	51.8	52.4	19	16	17	17	18
호주	9.895	9.721	9.506	9.118	9.045	49.2	50.1	47.0	46.5	47.4	18	19	19	19	19
뉴질랜드	7.690	8.098	8.383	8.231	8.692	38.2	41.8	41.4	42.0	45.6	21	20	20	20	20
체코	7.198	7.244	7.626	7.412	7.220	35.8	37.4	37.7	37.8	37.8	22	21	22	21	21
스페인	7.757	7.024	7.232	6.783	6.547	38.6	36.2	35.7	34.6	34.3	20	22	23	23	22
포르투갈	6.843	6.725	6.637	6.538	6.331	34.0	34.7	32.8	33.4	33.2	23	24	24	24	23
이탈리아	6.055	6.323	6.669	6.348	6.212	30.1	32.6	33.0	32.4	32.6	26	25	25	25	24
헝가리	6.671	6.879	7.835	7.015	6.168	33.2	35.5	38.7	35.8	32.3	24	23	21	22	25
슬로바키아	4.995	5.368	6.364	5.855	5.046	24.8	27.7	31.4	29.9	26.4	27	28	26	27	26
폴란드	4.988	5.625	5.791	5.286	5.008	24.8	29.0	28.6	27.0	26.2	28	27	27	29	27
멕시코	3.497	5.166	5.167	5.107	4.935	17.4	26.7	25.5	26.1	25.9	30	29	30	30	28
터키	6.438	6.123	5.705	5.874	4.565	32.0	31.6	28.2	30.0	23.9	25	26	28	26	29
그리스	4.712	4.506	5.346	5.594	4.552	23.4	23.2	26.4	28.5	23.9	29	30	29	28	30
OECD 평균	9.983	9.996	10.288	9.924	9.589	49.6	51.6	50.8	50.6	50.3					

주) 점수는 COSTII의 평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화지수, 상대수준은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자료)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각 년도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6년 제27호

발간물 명 :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7-130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조사분석실
Tel. 02 589 5240 Fax. 02 589 2915